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위원회별 청지기훈련 활발히 진행

지난 주간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시작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 전달

금년 들어 청지기훈련 중 각 위원회의 청지기훈련은 위원회의 특성과 직무에 따라 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청지기훈련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할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던 터에 연초에 전 회원이 모여 일년 동안 위원회 운영 사항을 듣고 토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할 수가 있기에 더욱 유익한 것이다.

이미 지난 주일에 시작한 전도위원회는 각 전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전도위원회 운영방안을 위원장과 지도목사가 강의했고, 19일(오늘)도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피차 협력 사항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

또한 지난 14일(화)에는 교육위원회의 청지기훈련이 갈릴리움에서 열렸다. 오후 7시부터 이른 시간에 모였지만 갈릴리움을 가득 메운 교사들은 '교회 음악의 위기'란 제목의 강신의 목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교회 음악의 문제점과



악의 위기'란 제목의 강신의 목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교회 음악의 문제점과

현대 음악의 비기독교적 요소들을 체험과 자료를 통해서 전달함으로 참석한 교사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아쉬웠다는 일부 평도 있었다. 또한 교육위원회 지도인 이종대 목사가 '장로교 12신조'를 짧은 시간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강의하여 교사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이어서 교육위원장 정하우 장로의 1997년의 교육목표 설명, 교육위원회 서기 서동석 장로의 교회학교 행정 실무에 대한 설명들도 교사들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회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마음과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위원회별 교육은 각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세심하게 교육할 수가 있어 훨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들은 소속 위원회 청지기훈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충성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위원회 청지기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배위원회
1월 26일(주일) 오후 3시 본당
- 찬양위원회
1월 26일(주일)
- 전도위원회
1월 19일(주일) 오후 3시 교육관 407호
- 선교위원회
1월 23일(목) 충현기도원
- 교구위원회
1월 22일(수) 1부예배 후 본당
- 봉사위원회
3월 1일(토) 차량관리부 봄 정기수련회

충현전도대 활동 개시

1차 모임이 1월 19일(오늘)
오후 3시 30분에 베다니홀

모든 성도들을 전도 요원화 하고 성도들의 전도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현전도대 활동이 개시된다.

이는 그동안에 10여년 이상에 걸친 충현 70인전도대 훈련 이수자를 포함하여 전도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 자들로 매주 모여서 찬양과 기도회, 전도 활동에 대한 간증을 실시하고 다음 전도 활동(전도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는 교구를 선정하여 순회 전도 활동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1차 모임이 1월 19일(오늘) 오후 3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모이게 된다. 충현 70인전도대 수료자와 관심 있는 자가 모두 참석하면 된다.

회계 실무 교육

1월 19일(오늘)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07호

재정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교회 각 부서 및 지회의 회계 실무 교육을 1월 19일(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한다.

해당 부서장은 담당 회계를 꼭 참석토록 적극 협력하여서 바르고 정확한 회계 업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7년도 제1기

출판국 기사 모집

충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간충현과 계간충현을 함께 꾸며나갈 헌신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열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부문 : 사진기자 0명
취재기자 0명
2.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대학부 이상의 모든 성도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교적번호 기재)
4. 문의 : 충현교회 출판국
(선교관 303호 교번 516, 348번)

제1차 학습, 세례식
2월 16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거행

2월 2일, 9일(주일)에 교육 및 문답

금년 들어 첫번째 학습, 세례식이 오는 2월 16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1997년부터 학습, 세례식 일정이 다소 바뀐에 따라 학습, 세례식은 물론 주위에서 권하는 교구일꾼 및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동안은 학습, 세례식을 금요일 저녁에 갈릴리움에서 실시하고 이를 위한 문답과 교육을 목요일에 실시했으나 금년부터 학습, 세례식은 주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김창인 목사의 집례하에 실시하여 본원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및 문답은 2주

전부터 2주간에 걸쳐 주일 오후 3시~4시50분까지 실시하게 되며,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2월 16일, 5월 18일, 8월 17일, 11월 16일) 학습, 세례식을 하게 되므로 이에 참여할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2월 16일 학습, 세례식에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1월 26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아국영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 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04호	교회론 (전홍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징계를 당하는 성도의 태도

(시편 39:1-6)

다윗은 국민의 지도자로서 전쟁중 인 때에 일선 장병을 위해서 기도 하고 자신은 근신해야 되며 전방에 나가 싸우는 군인의 가정을 잘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사람 앞에 존경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갖은 수단을 쓰다가 그 수단이 실패할 때에 살인죄까지도 범합니다. 다윗왕은 자신의 죄를 자기와 여자만 아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

다. 다윗왕은 범한 죄가 드러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죄에 대해 회개는 하지만 죄값을 받게 됩니다. 다윗왕에게는 여섯 가지로 죄값이 있었습니다. 첫째, 중병이 든 자식이 생겼습니다. 둘째, 간음죄를 범한 자식이 생겼습니다. 셋째, 살인하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넷째, 반역자라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다섯째, 충성스러운 신하와 친한 친구 가운데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왕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기록한 것이 시편 39편입니다.

1. 다윗의 결심이 어떠합니까

(1) 악한 자 앞에서 입을 봉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입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혀를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바로 쓰이면 좋은 것입니다. 불은 빛을 줍니다. 또한 불은 열을 내서 음식을 익혀 먹도록 하며 깨어진 그릇도 불 속에 넣어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냅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혀로써 지혜롭고 은혜롭게 하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에게 길의 방향을 밝히 지시하기도 합니다. 금이나 은은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축복하는 혀입니다. 그러나 불을 잘못 쓰면 남의 집에 불이 나고 자기의 몸이 상하고 전쟁불로 나라들이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 앞에서 혀를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 조롱하고 저주할 때에 역을한다고 변명을 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도록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의 말에 변명하지 않으며 입에 자갈을 물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기로 생각합니다.

(2) 선한 말도 안하기로 합니다

변명은 안해도 선한 말은 해야 될텐

데 다윗은 선한 말도 안하기로 합니다. 의인이 선한 말을 해야 값이 있는데 다윗은 스스로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인이 선한 말을 해도 값이 없음을 알고 선한 말도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인이 말을 하면 가만가만 하는 말도 뼈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끼치지만, 죄인이 뇌성벽력처럼 고함을 질러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전에는 선한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은 차라리 다윗왕처럼 병어리 노릇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에 사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들이 습격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꺾박하는 사람이 꺾박의 무서운 칼을 뽑아 들고 사자처럼 덤벼들면 신자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순한 양처럼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칼을 맞아서 뽑으면 육신은 이기는 것 같으나 영은 망합니다. 꺾박이 올 때에는 순한 양처럼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악마의 유혹은 성령님의 칼로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셋째, 음해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귀머거리,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음해의 골짜기란 꺾박받는 성도를 죽이는 악마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말하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는 증인이 나오고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보았다고 진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도 귀머거리처럼 못들은 척하고 내 일만 하는 사람이 음해의 골짜기에서 이깁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시험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면 성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입을 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호소하는 말이 터져나오고 변명하게 되고 원망과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합니다. 즐거울 때에는 자랑하지 않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결심으로는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입에서만 말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변명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왕은 죄를 범하므로 어려운 일을 거둬 당할 때에 죄를 더 많이 범했다고 뒤집어 쓰우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입을 봉하기로 단정하며 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말해야 할 때에는 말하고 병어리 노릇 해야 할 때에는 병어리 노릇 할 줄 아는 금강석과도 같은 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 인생의 일생이 어떠합니까

(1) 인생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입

인생이 튼튼하다고 할 때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의 장래를 위해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회개하며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을 열어 놓고 기쁠 때 마음껏 감사 찬송 부르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부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어려울 때에 호소하면 약자의 호소를 이용해서 남은 것까지 빼앗깁니다.

다윗은 말을 안하려고 하니 속이 뜨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속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 위에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을 뼈 속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천 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면 남을 해하는 죄는 범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마친 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을 알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2) 일생이 짧습니다

성도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안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돈과 권세를 의지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을 할 부로 거역하는 교인이 되고 하나님까지도 거역하는 죄인이 됩니다.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죄를 범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낭떠러지,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십 년을 살아도 값이 있고 오십 년을 살아도 값이 있지,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백 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손뼉이 만큼도 안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성공에 교만과 정술과 행악이 따르면 그 뒤로 무서운 멸망의 연합군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그를 손뼉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몰고 습격해 오면 파란치도 무너지고 세력의 야성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라가 버립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리에 섰더라면 넘어질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품 밖에서 자기 혼자 서 있다가 허사로 날려 버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위태로운 곳에서 있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3) 그림자 같습니다

세상 억만 가지가 무상합니다.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진실로 내용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산은 그림자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만 년이나 가게 하려고 쌓았지만 쌓아 놓은 사람이 죽으니 그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만리장성도 만 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날 땅 위에서 일어나는 억만 가지 일들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는 말이 아닌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솟불로 지지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의 불로 지저 주옵소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튼튼하다고 할 때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의 장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회개하며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여는 우리의 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바나선교대회를 다녀와서

어바나선교대회와 중헌교회

이 승 립

(목사, 선교위원회, 영어예배부 지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미국 일리노이주의 어바나시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다. 2만명 가량의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라는 주제 하에 모였던 것이다. 본 교회에서도 27명의 청년들이 이 역사적인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고 계시는 선교의 역사를 함께 증거하였던 것이다.

1. 어바나 세계 선교대회란?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교파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인 미국의 IVF(Inter Varsity Fellowship)가 주최하여 미국 일리노이주의 어바나시에 위치한 일리노이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어바나 세계선교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선교대회들 중 역사와 권위, 또한 규모에 있어 가장 정평이 있는 선교대회이다. 본 선교대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상사명인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함께 모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50년 전인 1946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되는 가운데 전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세계 선교 사역의 산파적인 역할을 이제까지 감당해 오고 있다.

2. 어바나 선교대회의 규모

지난번 1993년도 어바나 선교대회에는 전세계에서 온 17,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였고 금번 대회에는 19,3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의 선교대회였다. 대회가 개최되기 40일 이전에 참석을 원하는 인원이 이미 수용능력인 19,300을 초과하여 본 대회가 개최된 12월 27일에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자리가 없어서 선교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3. 어바나 선교대회의 내용

선교대회는 1996년 12월 27일 저녁에 시작되어 12월 31일 자정까지 진행되었다. 기간중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는 소그룹 성경공부로 시작되어 오전과 저녁에 전체로 모이는 선교대회, '낮에는 200개 이상의 자유 선택 세미나들이 있었고 저녁집회 후 소그룹 기도회 등으로 하루가 끝나면 밤 10시 30분이 되었던 바쁜 일정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전과 저녁의 전체 선교대회를 한국어, 프랑스어, 세반어, 일본어 및 수화로 동시통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선교대회장소에는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각 선교기관별로 사역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들을 제공하였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던 세계적인 선교 대박람회라고 할 수 있었다.

선교대회를 통하여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로, 또는 선교후원자들로 헌신하였다. 본대회 중 전체 참석자들은 가난한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한끼를 금식하였고 또한 헌금하여 모은 금액이 4억원이 넘었고 이 모은 헌금은 전액 어린이 기아대책을 위하여 사역하는 몇몇 선교기관들에게 보내졌다.

4. 한인들의 놀라운 선교열

본대회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19,300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한국교포 젊은이들의 참석수가 전체의 10퍼센트가 넘는 2,000명 이상이었던 사실이다. 이것은 놀라운 숫자로서 북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실로 소수민족에 속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포 청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매우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본국에서는 약 80명 가량이 참석하였는데 IVF 한국지부와 몇몇 선교기관들을 통하여 15명 가량의 참석하였고 몇몇 개교회들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이 있었다. 반면에 중헌교회에서는 27명이 단체로 참석하여 본국에서 참석한 여러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맺음말

약 100여년 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초대 선교사들 중 상당수는 당시 북미지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대학생 선교와 부흥운동을 통하여 헌신한 젊은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에서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접어두고 가난하고 위험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건너왔던 것이다. 당시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로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금번 중헌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손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선교역사의 대열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교회는 다음 주일(1월 26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동안 선교헌금을 작성하고 신실하게 드렸던 2천여 성도들과 교육부의 모든 학생들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새로이 헌신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선교하며 후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불길처럼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중헌의 많은 젊은이들도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여 세계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감격, 또 감격

김 연 성

(대학부 교사)

예수의 죽음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에 관해 사도행전 2장은 증거하고 있다. 늦가을 즈음 소리 없이 시드는 가로수의 잎들처럼 때로 쇠잔하여지는 내 심령을 향해 여전히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로 인한 공동체의 새 역사를 꿈꾸도록 다시금 독려하고 뜨겁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계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은혜 받아야 할 이 때가 '오순절' 그 날이 되기를 소원케 하는데, 내게 아니 나뿐 아니라 피부가, 언어가, 문화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은 19,300여명의 전세계 20대 젊은이들에게 지난 12월 27일-1월 1일은 '오순절'이었고, 어바나라는 우리가 모인 그 대회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모두가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성령의 급하고 강한 역사는 각각 필요하고 적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있었겠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같이 은유하고 우리를 한량없는 기쁨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4장의 '다른 어떤 이름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치유되어진 사건', 8장의 '빌립의 순종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해석하여 주는 사건', 10장의 '고넬료의 환상으로 인한 베드로의 초청과 교회의 화해 사건' 등을 통한 말씀의 도전과 그에 따른 말씀의 적용, 기도로의 결심은 다시 한 번 우리를 믿음의 터, 말씀의 터에 세우기에 충분했다. 또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라는 어느 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가사 그 자체처럼, 19,300여명이 모일 때마다 임한 찬양의 영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짧은 만남의 시간과 역시 짧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된 형제, 자매라는 우리의 실존은 놀라운 친밀함과 영적,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했고, 스치는 얼굴 속엔 우리네가 늘 부딪혔던 무관심과 소외와 외로움과 우울함이란 이름대신 감사와 평안과 온화함과 예수 안에서 배움에 홀려 넘쳤으며 그 얼굴 속에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세력함은 자리할 수 없었다.

세계 지도 어디에서도 본 기억 없는 어느 선교지에서 숨은 기도와 평생에 걸쳐 쏟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땅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변형되어진 희심과 구원사건들, 예수를 껴안았던 사울과 같은 모습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와의 만남으로 변화된 바울 선생님처럼 캠퍼스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의 헌신

된 제자로 바뀌어진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들, 50년 전 이 대회에 참석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당시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시고 그 헌신했던 삶과 백발로 우리에게 보고하시던 모습들, 이런 숭전보들은 그야말로 힘주어 우리의 손을 마주치게 했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립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역사들을 찬양하게 했고, 우리의 얼굴과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심어놓았다. 당신의 자녀로 일하게 하시고 만족함을 취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의 축제가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 벌어졌을 것이다.

감격스러운 보고대회를 넘어서서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주 오실 날의 앞당김 등 이런 궁극적인 완성과 그 때의 감격을 전심으로 소원하고 기대하게 하시면서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바나선교대회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we are witnesses)'라는 주제가 상기시키듯 '남은 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확인시키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미전도종족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실제적 도움의 손길, 그들을 위해 이미 앞서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각각의 달란트에 합당하게 실제적 선교현장의 예비선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이들을 기도로 파송하며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보내는 선교사이자 자신의 삶의 현장을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모습 또한 우리 안에 풍성했다.

1996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밤, 주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적셔주던 성찬식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대회 내내 우리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 아래 거하게 하시던 그분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게 하였고, 어바나 이후의 우리 평생을 주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계 5:13)



토막소식

▶ 오는 1월 26일은 선교주일이다. 선교위원회는 선교주일을 맞아 여러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먼저 26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선교총회를 실시한다. 이 총회에서는 선교지 소식 및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선교 비디오도 상영할 예정이다.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위원, 실행위원, 기도위원, 청년대학부 선교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또한 선교관 1층 로비와 만나홀 입구 계단에서는 선교지에서 보내온 기념품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 개설강좌

- 초급, 중급, 고급
- 수요일반(오후 12시 30분~2시)
- 주일반(오후 3시~4시 30분)

▶ 교육일정

- 개강예배
1월 26일(주일) 오후 3시
교육관 109호(에바다부실)
- 교육기간
수요일반: 1월 29일~4월 16일
주일반: 2월 2일~4월 20일
- 수료예배
4월 27일(주일) 오후 3시
교육관 109호(에바다부실)

▶ 본 교회 수화교실 수료자는 농아복지회 주관 국가고시 '수화통역사'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들과 선교 관련 정보들을 전시하게 된다. 또한 이날 찬양예배에는 선교연구원 1-6기 수료생과 선교위원, 실행위원이 특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오늘과 26일 오후 3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찬양연습이 있다.

▶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시작된다. 중등1부에서는 김희수 목사를 강사로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수련회를 실시한다. 주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이다. 고등부에서는 오는 28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생회, 찬양대, 소그룹, 돌로스장들을 대상으로 연합수련회를 실시한다. 주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이며, 강사는 이국병 목사이다.

대학부는 내일부터 23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장봉생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히브리인의 신앙, 한국인의 신앙'이라는 주제 아래 수련회로 모인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주제 아래 수련회를 실시하는 청년1부는 23일(목)부터 26일(주일)까지 박형용 목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 신약학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복지관 지하1층에서 실시한다.

▶ 지난 1월 9일 부산온천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전국 성경대회와 찬송가대회에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했다. 성경대회에서는 이사무엘(초등부), 김구술(소년부), 이마리아(중등3부), 양반석(중등3부)이 우수상을 탔으며, 찬송가대회에서는 초등6부(현재 중등1부)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중·고등부 선교수련회

중·고등부 선교수련회가 오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현기

도원에서 실시된다. 2천년대 선교를 담당해나갈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신앙 성숙과 준비를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고등부 이국병 목사, 선교위원회 이송림 목사, 유치부 한영준 전도사가 담당한다.

학원전도회, 1월 25일 수련회

학원전도회(유치, 초등,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겨울수련회가 1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관 101호에서 모인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전원 참석하여 회원간의 교제와 말씀으로 은혜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독교 TV '아름다운 우리 교회'

1월 25일(토) 오후 10시 방영

우리 교회가 오는 1월 25일(토) 오후 10시 기독교 TV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프로그램(토, 오후 10시)에 방영된다. 기독교 TV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주일)에 각부 활동 모습을 촬영하며 2주간 동안 교회에 여러 모습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 취재 활동을 해 왔다.

다음의 글은 기독교 TV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취재를 하던 중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며 취재팀 중 한 사람이 보내온 글이다.

생명의 빛 환히 비취 주세요

김 지 현
(기독교TV)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 충현교회의 정교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곳곳에 주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들이 배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고 이렇게 단아한 성전을 주님께 선물받은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충현교회 교인들을 접하면서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고 훈훈한 주의 사랑을 가지신 충현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나타난 평안함과 주의 숨결과 향기를 지닌 성도님들의 따뜻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신감 있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44년의 역사를 가진 충현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나 대외적인 면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은 이유를 알고 싶어 열심히 취재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충현교회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쓸고 가 아무것도 없어진 그때부터 40여년이라는 그렇게 길

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 간절한 생각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과 가식으로 가득찬 물질 문화에 한없이 나약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충현교회를 보면서 점차 희망과 안도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빠른 성장 속에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충현교회!

반공정신이 한창 강조되어 감히 북한 선교를 엄두도 못내고 있을 때 민족의 아픔의 치료자가 되어 담대히 이를 준비하고 실천한 충현교회!

이 막막하고 차디찬 사회에서 갈 곳을 잃어 어디에 그들의 등지를 틀지 몰라 허공에서 빙빙 돌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의 포근한 날개 아래서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충현교회!

비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가는 이 나라의 아픔과 함께하고 아픔을 치유하려는 충현교회!

계속 이 땅에 빛을 밝히고 희망을 주는 사랑의 등불이 되어, 밀알 한 알이 씹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생명의 빛을 환히 비취 주세요.

1997년 군전도회의 계획

회원 2,000명을 목표로

군입대자, 군교회건축, 진중세례식, 군목지원 등
실제적 활동전개로 큰 호응 얻어

70년대에 한창이던 진중세례식을 위시한 군전도 활동이 뜸해져 오고 있던 중 우리 교회는 최근에 군전도 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이는 군전도 활동이 매우 실제적이고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군전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처음에는 군 교회 건축을 보조해 주거나 군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증거하다가 진중세례식을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교단 산하 군목들을 지원하고 군목 후보생들을 교육시키는 데까지 나갔다. 또한 충현교회 교우로서 군대에 입대한 입대자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 발간물 우송, 입대 기념품 및 성탄절 선물 등을 보내주기도 한다.

군 전도의 열매는 당장에는 거둘 수 없지만 2-3년이 지나면(그래서 군대에서 복음을 들었거나 충현교회를 알게 된 사람이 제대하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군전도회는 꾸준히 발전하여 금년도 회원 목표가 2,000명이나 된다.

국군 장병의 복음화, 모범을 보이는 섬김의 협동체, 전도회 및 교회 부흥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활동하는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 지도 현상민 목사)의 1997년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군 교회 건축

- (1) 신축 및 증축
- (2) 교회 비품

2. 진중세례식

- (1) 신병교육연대 및 사단
- (2) 하사관 및 장교교육부대

3. 군목지원

- (1) 전도비 지원: 장기 복무자로서 전투부대와 교육부대 군목 우선 지원
- (2) 군목수련회 및 세미나
- (3) 군목 후보생 교육

(4) 전도용품 지원

4. 충현 가족 입대자 관리

- (1) 명단 관리
- (2) 교회 발간물 배포
- (3) 입대 기념품 및 선물 전달
- (4) 상호 연락 유지

5. 회원의 단합 및 사명감 제고

- (1) 기도운동
- (2) 전도교육
- (3) 수련회 및 평가회
- (4) 회원 배가 운동: 2,000명

군대에서 온 편지

예배가 생활에 큰 활력소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운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군전도회의 사역을 통하여 저희 교회의 교육관 건축과 예배당을 증축토록 도와 주신 충현교회와 군전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사단 195대대 선교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최정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행사라도 치를라치면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고 군종들의 업무공간이나 형제들의 친교 공간도 제약이 많았는데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런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군생활 중에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시는 것은 형제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증축

과 교육관 건축은 저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교회의 사진을 동봉합니다. 아직 교육관의 내부공사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내부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부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충현교회 군전도회와 같은 후원이 부모형제를 떠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훈케 합니다. 국방의 의무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서 이번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을 군대 속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현교회에 넘치고 세상의 빛된 교회로 빛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